

# 이 력 서

Y . N

지원 분야

목사 후보생 고시

성명	이지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8.10.25			세례일	1999년 4월 (유세) 2012년 4월 5일 (입교)	
현주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76번길 134 (401-703)			주거	자택	
연락처	전화	010-9923-1612				

학 력 사 항	입학		졸업		학교명	학제	학과명	자 격 및 면 허	종류 및 등급	취득일	발행처
	2011	3월	2014	2월	계산여자중학교				델프 (프랑스어)	2020.11.22	delf-dalf
	2014	3월	2015	3월	인천 효성고등학교				토익	2024.09.07	ybm
	2015	4월	2017	2월	개포고등학교				스피치지도사 1급	2025.05.16	한국평생교육 인증원
	2019	3월	2024	2월	동덕여자대학교		프랑스어학과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학과		목사안수일	년 월 일	

신앙 경력	교회 & 선교단체명		기간		활동 부서	기간
	공주중앙교회		1998년 10월 ~ 2002년			
	계성교회		2002년 ~ 2013년			
	온누리교회		2017년 11월 ~		허브 공동체	

일반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년월~년월)	근무부서	직위	어 학 어 력	외국어 명	
	수학의 힘	204년 3월 ~ 2025년 6월	초등부, 중등부	수학 강사		영어	중
	라운제나 스피치	2025년 9월 ~	스피치 교육	스피치 강사		프랑스어	중하

병역	역종	군별	계급	병과	복무 기간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종교	동거여부	부모생존여부
	부 (○)	이성근	66	기독교	○	부(O), 모(O)
	모 (○)	김희숙	66	기독교	○	형제관계
	언니	이지애	40	기독교	X	( )남 ( 3 )녀 중 ( 셋 )째
	언니	이지원	32	기독교	X	장애등급
						해당 사항 없음

상기 지원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2 월 24 일 작성자:

(印/서명)

# 자기소개서

\*한 페이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p>성장 과정</p>	<p>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해 아나운서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목회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께 찾아온 우울증과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 그리고 대입 실패로 인한 재수와 삼수는 제 인생의 큰 흔들림이 되었습니다.</p> <p>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참 좋으신 하나님'과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저와 제 가정을 건지시고 불드시며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p> <p>한때는 목회자인 아버지의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를 닮은 딸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p>
<p>성격 및 장단점</p>	<p>저의 장점은 '솔직함'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며, 실수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솔직하게 말하고 나누었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 "지호의 솔직함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p> <p>반면 저의 단점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에도 제 생각을 덧붙여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보다 타협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었기에, 요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p>
<p>신앙 간증</p>	<p>2022년 여름,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던 저에게, 말하는 직업이 아나운서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설교를 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것 같았지만, 그 부르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며 감당하셨던 고통과 무게를 가까이에서 보아왔기에, 그 길이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 <p>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두려움으로 그 부르심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공동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두려움'의 베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p> <p>그 자리에서 저는, 제 힘으로 잘 살아가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p>
<p>목회 철학</p>	<p>저의 목회 철학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양육과 전도, 선교'를 멈추지 않는 목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 다시 또 다른 생명을 세워 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고 믿습니다.</p> <p>저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양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워 가고자 합니다.</p> <p>더 나아가 복음이 다음 세대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루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이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p>
<p>비전</p>	<p>저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p> <p>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기억하며, 저 역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연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인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무언가를 찾으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p> <p>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p>

